



IBKS Spot Comment

건설/부동산

조정현

02) 6915-5660

controlh@ibks.com

[SNT에너지]

루이지애나 거점 확보의 전략적 함의

SNT그룹 미국 신규 법인 설립

SNT에너지는 상반기 중 미국 루이지애나에 그룹사와 합작으로 ‘SNT Global LLC’ 설립을 확정했다. SNT모티브·SNT에너지가 총 5,940만 달러를 투자해 첫 미국 내 통합 그룹 제조 거점을 꾸리는 안으로, 부지는 과거 트리니티 마린 제품 공장을 개보수해 활용하며 가동 시점은 2026년 상반기로 제시됐다. 목적은 국방·자동차·에너지·프로세스 산업용 부품의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동사는 약 14억 원을 출자하였고, 지분율로는 3.3%다.

기대효과는?

단기적 기대 효과는 A/S 리드타임 단축으로 판단한다. 특히 걸프코스트, 그 중 루이지애나에는 착공 및 승인 후 미착공 상태인 LNG 액화·수출 프로젝트가 40% 밀집되어 있어, 해당 권역 내 거점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국, 단기 목적은 A/S 리드타임 감소이되, ‘납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고객의 운영 단계까지 동행하면서 점유율 상승을 도모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 판단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포트폴리오가 LNG 액화 설비용 에어쿨러 중심에서 미국향 HRSG·가스발전용 에어쿨러까지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동사는 과거 델탁(미국)·지멘스 벤슨과의 기술 제휴 이력으로 HRSG 설계·제작 역량을 축적해왔고,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로 북미 가스발전 CAPEX가 늘어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우디 현지 자회사(SNT Gulf)를 통한 중동 레퍼런스도 유지되며, 미주 거점 신설로 글로벌 양대 수요지(걸프·걸프코스트)를 양쪽에서 커버하는 구조가 완성된다.

3분기 실적 및 수주 모멘텀은?

실적 측면에서 3분기 영업이익은 170억 원으로, 컨센(150억 원)대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전기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2분기 납기 관련 정산 이익(일회성)이 소멸하고, 대형 현장 준공 공백이 존재해 OPM 19.4% 재현은 부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4분기에는 Woodside LNG 발주가 기대되고, HRSG 발주 흐름이 재차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